

# 한국전통복색에서의 청색과 흑색

— 청색의 범주문제를 중심으로 —

이 은 주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 A Study on the Blue and Black Colors in Korean Traditional Costume

— About the Category of Blue Color —

Eun-Joo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1993. 11. 15 접수)

### Abstract

A study focused on the implication of the blue and black colors in Korean traditional costume is presented. The presented study shows that the blue color in most of literatures regarding Korean traditional costume implies not only green and blue colors, but also dark blue and black colors.

In a broad sense, the blue color implies a color category which includes green, indigo, blue, dark blue and black. On the other hand, the color includes blue, dark blue and black in a narrow sense. The color black, however,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blue and dark blue because it has two types of black colors with and without reddish tone.

Four reasons that the color blue was understood as the color black were discussed in this paper. The fundamental reason was that the blue color looked like black because of dark shadows. Secondly, there was a difference of color awareness between the color blue in Korea and in China. Thirdly, there was a color difference related to the type of textiles. Finally, other substitutes were used because of the lack of blue dyes.

### I. 서 론

최근 색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통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전통색채를 알고자 하는 의욕을 더욱 증가시켰다.<sup>1)</sup> 전통색채에 대한 이론적 연구나 재현을 위한 실험적 노력은 민족고유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색채문화를 질적, 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통색채의 재현이 그리 단순한 일은 아니다. 천연염료나 매염제의 원활한 공급 뿐만 아니라 적절한 염색 조건 등의 제공과 같은 염색의 실질적이고도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물론이고 전통색채의 이론적 정립과 더불어 생산적 차원에서 재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전통색채 나뉠대로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올바른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색채관의 파악과 아울러 색채 인식의 특징이나 분류법, 명명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고대인들의 색채론에는 나뉠대로의 독특한 질서나 철학이 담겨있다고는 해도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다소 과학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 이론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분화되지 않은 색채명칭에 근거하여 단순하게 가시적인 색채로 환원시키거나 이해하는 것은 전통색채에 대한 이해와 재현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게 되는 커다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념색 차원에서의 분류와 더불어 현상색 즉 염색을 바탕으로 한 염료와 매염제 차원에서의 색채분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재현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방면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靑色이라는 색채명칭이 나타내는 가시적 색채의 범위를 밝혀보고 서로 별개의 것처럼 보이는 靑色과 黑色의 문제를 거론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 중심의 고찰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시적 색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으며 불분명한 색채인식이나 색채어휘를 사용한 고대인들의 문헌적 자료를 이용하는 데서 야기되는 근원적인 애매성도 내포될 수 있음을 밝혀두면서 후일에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II. 조선조 색명 표기상의 특징

색채는 크게 개념적인 색(개념색)과 가시적인 색(현상색)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때 양자 간의 관계를 맺어주고 연상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色彩名稱, 즉 色名이다. 色名은 인간의 色彩認知를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색채문화가 점차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인지되는 색채의 범위도 확대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색명도 증가하게 되었을 것이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색채인지 발달과정은 각 민족마다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Berlin & Kay의 가설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먼저 식별한 색채는 빛을 통한 명암

즉 백과 흑<sup>2)</sup>이었다. 그 다음, 적색을 인지하게 되었고 다시 청(녹)색을,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황색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화되었을 것<sup>3)</sup>이라고 한다.

한편 고대 중국의 색명은 다소 추상적인 철학적 관점에서 설명되는 경향이 있다. 前田<sup>4)</sup>은 동양의 색채 발달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玄은 天 혹은 천지만물의 근원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極大이며 日은 태양 즉 白에서 시작된다. 白이 나온 곳에 天空의 靑이 생기고 동시에 赤이 생긴다. 밝아오는 아침의 색이다. 赤에 의해 대지 즉 黃이 존재를 드러내고 만물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즉 玄에서 白, 靑, 赤, 黃으로 생성,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원초적인 색채인지의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문헌적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은 중국의 문화를 수용한 이후의 것이고, 따라서 이미 중국의 색채문화 영향을 받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色名이 구체적으로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삼국시대 이후로 보인다. 기록된 색명 자료의 대부분은 服色에 대한 것들로서 특히 계급구분과 관련되어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편 조선시대에는 그 전 시대에 비해 현저하게 다양한 색명을 접할 수 있다. 그 색명은 대체적으로 한자에 의한 중국식 색명과 우리민족 고유의 색명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중국의 복식과 직물이 사여나 교역을 통해 유입되는 등 중국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지라 중국식 색명이 우세했던 것은 당연하다.<sup>5)</sup> 문헌상으로 볼 때 그러한 흔적은 아주 역력하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색명들은 몇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 첫째, 이 시대만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문헌상에 등장하는 색명 중에는 한가지 색상에 대해서도 명칭을 달리한 同色異名의 한자색명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 蔥白과 玉色<sup>6)</sup>, 또는 魚白과 玉色, 寶藍과 天靑<sup>7)</sup>, 月白과 藍色<sup>8)</sup> 등이 그것이다.

둘째, 전향과는 반대로 異色同名 즉 한 색명으로 여러 색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색명이 청색일 것이다.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색이 녹색과 남색은 물론, 더 나아가 흑색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대홍(大紅)과 다홍(多紅)처럼 음운 변화에 의해 표기가 달리된 경우도 있다.

네째, 福靑이라는 색명처럼 특정 시기에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명칭들도 있다.

다섯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색명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색상 자체는 달라진 경우도 있었던 바, 혼례의 예단으로 사용되었던 玄, 纁이 그러하다. 즉 예단의 색상 자체는 청, 홍이면서도 명칭은 음양 또는 천지를 의미하는 현, 혼으로 사용된 경우인데<sup>9)</sup> 어느 때는 개념적인 색명으로, 또 어느 때는 가시적인 색명으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여섯째, 대부분의 색명이 한자로 표기되는 가운데 前代에 비해 구체성을 띠는 명칭도 보인다. 예컨대 秋 香色은 송화색, 南松은 연한 송화색, 北松은 짙은 송화색으로 일컬어졌던 것이다.<sup>10)</sup> 이는 중국 고대의 개념색 대신 자연물에 근거를 둔 가시적 색이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색채의 범위를 음양이라든지 정색이나 간색에 준해서 일괄 분류하려는 추상적 경향 또는 미분화적 특성을 여전히 보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한자색명이면서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색채가 달리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바, 청색이 그러한 예라고 여겨진다. 조선조 초기에 중국에서 전래된 청색 옷감이 우리나라의 청색보다는 진했던지 거의 흑색이라 할 수 있는 색이었다. 祭服의 靑絹衣가 흑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 동일대상에 대해서도 한 문헌에서는 아 청색으로, 다른 문헌에서는 흑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역시 그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 대한 근거는 다음 장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이상으로 열거된 조선조 색명 표기나 사용상의 특성을 미루어 보면서, 문자로 기록된 색명을 단순하게 가시적인 색채로 유추하여 환원시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이다.

### III. 색명을 통해 본 청색의 범주

청색은 홍색과 더불어 우리 전통적인 색채문화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색상이다. 현대색채론에서 청색은 綠色과 紫色의 범위에 걸쳐 있는 색상으로 이해된다. 여러 단계의 명도와 채도로까지 분화시키면 더 많은 색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한편 한자 색명인 靑色은 파란색 또는 푸른색이라는 우리말 어휘로 표현된다. 이들 우리말 어휘 역시 지칭

하는 색채의 범위가 넓다. 예컨대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며, 소나무도 푸르고, 눈도 푸를 뿐만 아니라 새싹도 파란 것이다. 그렇다면 푸른색은 블루(blu)와 그린(green)의 광범위한 색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말의 푸른 색이란 {청<sub>1</sub>+청<sub>2</sub>+청<sub>3</sub>+...+청<sub>n</sub>}, 즉 청의 원소와 그 집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sup>11)</sup> 한자 靑色에 대해서도 이 등식이 성립된다.

「設文解字注」<sup>12)</sup>에 보이는 靑의 정의는 간단하다. 그저 ‘東方色也’ 즉 동방의 색일 뿐이다. 한편 「釋名」<sup>13)</sup>에는 ‘靑生也 象物生時色也’라 하여 사물이 생성할 때의 색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동방의 색이자 생성의 색인 것이다. 그렇다면 청색 즉 푸른색의 원초적 개념은 시각적 구분에 의한 색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심상함, 생명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의미를 지닌 청색이라는 색명은 자연물의 이름에 접합되어 대상의 색채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靑松에서의 청은 소나무의 푸른색을 연상하게 하고 靑石에서는 돌의 푸른색을 연상하게 하듯이, 각 자연물이 지니고 있는 현상색 즉 가시적인 색을 나타냈다. 즉 개념색으로의 청색이라는 색명은 점차 자연물의 명칭과 결합됨으로써 각 자연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가시적인 색상을 의미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그 색채의 범위는 확대되어 갔을 것이다.

색상군을 청색계와 남색계, 녹색계를 별 개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sup>15)</sup> 우리나라의 청색에는 녹색과 남색이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조선조 문헌 기록을 살펴 보면 청색이 남색이나 녹색 외에 흑색을 포함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청과 흑이 동일대상을 설명하는 문장 속에서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이와 다소 유사한 관점을 언급한 연구가 있다. 먼저 金永淑<sup>16)</sup>은 청색의 범주를 크게는 남색계와 녹색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옥색, 남색, 녹색, 아청색(흑)을 지적한 바 있고, 金用淑<sup>17)</sup>은 紺色, 皁色, 玄色 등과 더불어 반물과 鴨靑色을 흑색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색상은 아청이다. 아청은 원래 남으로 물들인 청색이지만 아주 짙은 청색 이어서 흑색에 가깝게 보일 뿐만 아니라 붉은 빛이 도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청을 청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흑색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야기되는 바, 조선조 기록에서는 그러한 시각적 애매성 때문에 아청에 대해 청과 흑이라는 명칭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청색의 범주를 녹색계와 남색계 외에 흑색계까지 확대시켜 봄과 동시에 그렇게 된 연유와 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 A. 청은 藍色이다.

藍은 세계적으로 350여 종이나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가장 좋은 염료로 알려져 있는 인도남만도 그 亞種이 40여 종에 이르고 있다.<sup>18)</sup> 남염은 藍의 종류에 따라 색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염색 방법도 다르며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색상도 다르다.

한편 조선조의 『農家月令歌』 8月令歌에는 ‘쪽드리고 잇드리니 청홍이 색색이라...’<sup>19)</sup>라는 귀절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쪽이라고 불러 왔던 染草로 남색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를 청색이라고도 하였던 것이다. 『樂學軌範』<sup>20)</sup>의 處容官服 중 東方 青衣의 注에 남색을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바, 동방의 청색에 남색을 사용하고 있으니 결국 남색은 동방의 색인 청색인 것이다. 또한 조선조 전시대를 통해 대표적인 청색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역시 남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색을 얻는 방법은 『閨閣叢書』<sup>21)</sup>에 기록되어 있다. 남잎에 열음과 물을 부어 돌로 지쳐서 즙을 낸 후 걸러 비단에 들이면 된다고 하였으며 또 그 즙에 열음물을 넣어 열게 하면 옥색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남색은 藍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색상임을 알 수 있다.

#### B. 청은 綠色이기도 하다.

『說文解字注』<sup>22)</sup>에 綠은 ‘帛青黃色也’라고 되어 있다. 녹색은 황색의 간색이기 때문에 청색과는 확실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과 녹색이 별개의 색으로 구분되에도 불구하고 靑이 녹색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中宗 33年 5月 ‘세자의 상복과 음복을 모두 아청색을 사용했었지만... (중략)... 동방이 청색에 속하니 마땅히 청색을 숭상할 것이라 하여 초록으로 세자의 음복을 고쳤는데 제상들도 모두 그 색을 입으니...’<sup>23)</sup>라는 기록이 보인다. 즉 중국의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는 오방색 중 청을 숭상해야 하며 그래서 초록을 세자의 복색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색상 자체를 구별할 때는 청

색과 녹색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면서도 동방을 의미하는 개념색으로는 녹색도 청색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가시적인 색으로는 청과 녹색 엄격히 구별되면서도 개념색으로의 청색에는 녹색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녹과 청의 혼동현상은 고대동양 색채문화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지적된 바 있다. 즉 오행 중 동방의 청이 木行과 관련됨에 따라 식물이라는 의미적 기반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풀이나 나무에서 볼 수 있는 녹색이 청과 동일시되었다는 것이다. 갑골문의 靑이라는 문자도 본래는 풍성한 초목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의미 혼동에 의한 색채 범위의 확대가 언어적 표현에서도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는 오방색이라는 개념색이 가시적 색채의 영역 속에서 타협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하겠다.<sup>24)</sup>

그러나 이러한 의미론적 원인 외에도 염색의 실제적인 문제도 관련되었을 것 같다. 즉 녹색은 황색과 藍의 重染으로 얻어지기도 하지만 남염 자체가 환원이나 산화의 조건에 따라 황색에서부터 황록색, 녹색, 청록색 등까지도 發色<sup>25)</sup>될 수 있다고 하니 녹색도 청색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C. 청은 靑色 또는 黑色이기도 하다

청색의 대표적인 색상으로 남색을 일컫기도 하면서 이들을 별개의 색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荀子』<sup>26)</sup>에 ‘靑取之藍 而靑於藍’이라고 하였고, 『淮南子』<sup>27)</sup>에는 ‘藍染靑則靑於藍...靑非藍也’라고 하니 청색은 엄밀하게 남색과 서로 다른 색상으로서, 청색이 남색보다 짙은 색상임을 알 수 있다.

청이나 흑이 각기 오방색으로서 독자적인 개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청색이 흑색에 가깝게 진해지다 보니 실제 생활 속에서 두 색이 혼동되거나 또는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元美浪<sup>28)</sup>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고대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조선조의 청색이 ‘흑’이란 색명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청=深靑 또는 靑

남색, 청색, 심청색, 아청색 중 명도가 가장 높은 것은 남색이고, 가장 낮은 것은 심청색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sup>29)</sup> 그러나 조선조 문헌상으로는 이들 청색, 심청색, 아청색 등이 동일색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먼저 冕服의 색상을 살펴 보면, 고려 공민왕 때 明으로부터 사여받은 咨文의 冕服 注에는 靑衣纁裳<sup>30)</sup>이라고 되어 있고 조선시대에 사여받은 咨文에는 '深靑粧花袞服'이라고 기록되어 있다.<sup>31)</sup> 그러나 『國朝五禮儀序例』 祭服圖說<sup>32)</sup>에는 玄色으로 되어 있고 그 注에 靑黑而微이라 하였다. 한편 광해군 6년 3월 '백관은 靑色官服을 갖추는데...靑衣라는 것은 深靑衣를 말한다...'<sup>33)</sup>라는 대목이 보이는 바, 청색은 심청색이고 때론 현색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한편 光海君대에 세자복색으로 '鶉色深靑有紋匹段'<sup>34)</sup>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또 당상관이 세자복색인 아청유문필단단령을 입어도 전에는 금하는 일이 없었다<sup>35)</sup>고 거론되는 것을 보면 아색심청이란 아청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색은 심청색 또는 아청색, 때론 현색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鶉靑은 정확하게 '鶉色深靑'의 준말로 여겨지며 우리말로는 '아청'<sup>36)</sup> 또는 '아청'<sup>37)</sup>이라고도 표기되었다. 이 색은 '붉은 빛이 도는 심청색(深靑揚赤色)'<sup>38)</sup>이라고 하는데, 국말 궁중에서 사용된 아청색 실물은 청흑색이 아니라 붉은 색이 도는 검청색이라는 보고<sup>39)</sup>도 있으니 붉은 색이 도는 흑색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아청색은 해바라기 씨<sup>40)</sup>나 鷄腸草<sup>41)</sup>를 이용해 얻을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藍에서 얻어졌다. 『林園經濟志』에 의하면 '연한 남염을 깨끗이 씻어 항아리에 넣고 물을 부어 3일간 담궈 두었다가 3일 되는 아침에 찌꺼기는 걸러내고 다시 남염에 물을 부어 3일째 아침에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른다. 항아리에 그 물을 나누어 담고 동이마다 썩젓물 세 사발을 섞어서 3일 동안 쉬지말고 사람을 교대하면서 저어, 하루 뒤 深靑이 붉은 색을 띠게 되면 염색하는데 여덟 번이면 대단히 아름답다'<sup>42)</sup>고 한다. 또 同書 臚用志의 染扇紙法에서는 靑水에 대 여섯번 염색한 후 蘇木汁으로 蓋染하여 아청색을 얻는다<sup>43)</sup>고 하였는 바, 남염으로 붉은 빛을 띠게 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소목즙으로 붉은 빛이 나게 한 간편한 방법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한편 아청색과 유사한 현색을 살펴보자. 현색은 元色이라고도 하는데, 역시 붉은 색이 도는 흑색이다.

『周禮』에 의하면 元色은 여섯 차례 염색하여 얻는 색으로, 우선 꼭두서니로 세번 염색하여 纁色을 낸 다음 그 위에 흑색을 세번 들인다. 그 흑색은 櫟斗로 얻는다고 하기도 하고<sup>44)</sup> 攄으로 얻는다고도 한다.<sup>45)</sup> 그러나 후대의 기록에 의하면 靑水로 심청을 들인 다음 蘆木이나 楊梅皮를 진하게 달인 물로 蓋染하거나, 아니면 물에 藍葉을 담아 靑礬을 넣은 후, 옷감을 넣고는 썩혔다<sup>46)</sup>고 하니, 아청색과 색상은 비슷한지 모르나 염법은 다를 수 있다.

### 2) 아청=흑

服色으로의 아청색은 특히 조선조 초기에 해당되는 세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대에 자주 거론되었는데 주로 세자의 복색이나 조신들의 복색으로 애용되었던 색상이다.

일반적으로 '청'과 '흑'은 별개의 색으로 인식된다. 즉 블루와 블랙은 분명 다르다. 그러나 조선조 초기에 청색이라고도 불렀던 아청이 점차 '흑'으로도 정착되어 감을 볼 수 있다. 성종조에 세자의 복색을 논하면서 녹색이 간색일 뿐 아니라 백관 공복의 최하위에 해당되는 색이기에 적합지 않으니 흑색을 사용하자고 건의하자 성종이 아청이라 하여 정색이라고 할 수 있는가<sup>47)</sup>라고 반문하는 대목이 있다. 즉 세자 복색으로 건의한 흑색이란 아청색을 말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중종대의 기록에 의하면, '時服은 아청색인데 우리 토산품이 아니어서 항시 착용할 수 없다'<sup>48)</sup>고 하였고 다시 '흑색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늘 입을 수 없는데 常參, 朝參의 拜辭時에 반드시 시복으로 뵈는 것은 禮見이기 때문이다'<sup>49)</sup>하였다. 또 광해군대에는 '우리나라 복식에서 黑衣는 時服이라 칭한다'<sup>50)</sup>라고 하니 아청색은 곧 흑색이고 동시에 시복의 색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黑團領의 색은 결국 아청색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아청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鶉色深靑으로 붉은 빛이 도는 심청색이다. 따라서 청색도 아니고 흑색도 아니기에 엄밀하게는 정색이 아니다. 아청은 흑색에 가까운 청색이기에 청색과 흑색의 간색 정도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1)항에서 살펴 본 것처럼 아청색은 청색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했고 2)항에서 처럼 흑색이라고도 표현되었던 것이다. 아청을 이처럼 흑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두운 색채를 통칭 흑색이라고 일컫는 고대인들이 지닌 색채인식의 단순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청이 흑으로도 표기되었음을 이해할 때, 왕세자빈의 직의가 嘉禮都監儀軌에는 아청색으로, 『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는 흑색으로 되어 있어 기록간에 나타나는 상이점 등의 문제<sup>51)</sup>가 해결될 수 있다. 즉 아청색은 흑색이라고도 표현되었기 때문에 두 색상은 표기가 다를 뿐 동일한 색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흑색이 아청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그와는 다른 흑색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다른 흑색도 존재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청이 붉은 빛을 띠는 흑색, 또는 深靑揚赤色이었던 반면, 그와는 대조적으로 붉은 기미가 없는 흑색인 無揚赤色黑이라는 것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 색은 無揚赤色黑衣, 無揚黑圖領, 無揚黑圓龍袍 등의 표기로 나타나는 바, 이들 복색은 王世子의 禮祭服<sup>52)</sup> 또는 王妃부친상의 小祥服<sup>53)</sup> 등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복색으로 사용된 흑색에는 두 종류가 있었으니 붉은 빛이 도는 흑색은 왕세자의 관복이나 백관들의 시복의 색상이었고 붉은 빛이 없는 흑색은 凶禮服의 색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흑색을 판단할 경우에는 전후의 맥락을 통해 붉은 빛이 도는 아청색인지 아니면 붉은 빛이 없는 흑색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 3) 흑=청

청이 아청이고, 아청이 흑이면 흑과 청은 동일한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해지는데, 흑색과 청색이 동일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를 문헌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종대의 한 상소 중에 ‘…지난 선묘조에 조관의 홍색 관복을 중국에 따라 청색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이항복은 청색으로 바뀌서는 안된다고 하였던 것처럼…(중략)…현재의 장복 역시 홍색을 흑색으로 바뀌서는 안된다’<sup>54)</sup>고 지적되어 있다. 그러나 선조대에 논의되었던 관복은 흑단령이기 때문에 청색이라는 조관의 복색<sup>55)</sup>은 흑단령의 색상을 말한다. 이렇듯 흑단령에 대해 청색과 흑색이라는 명칭이 혼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흑색=청색’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이러한 등식의 성립 원인을 살펴보자. 청과 흑이 동일하게 인식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청색과 흑색의 시각적 유사성에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漢代에 청과

흑이 ‘어두워지거나 또는 그림자 속에 처한 상태’의 색채그룹으로 분류<sup>56)</sup>됨에 따라 청색과 흑색이 同色群으로 인식되었고 그리하여 靑衣를 黑衫이라고도 했다<sup>57)</sup>고 한다.

그 외의 부수적인 원인들을 추정해 보면,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색채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조선조 초기에 전래된 중국의 청색이 우리나라의 기존 청색보다 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색을 청색이라고 부른 반면, 중국의 청색은 흑색이라고 하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둘째, 청은 염료에 근거한 색명이요 흑은 시각적 인식에 의한 색명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남염이기 때문에 청색이지만 시각적으로는 검기 때문에 흑색인 것이다.

셋째, 직물에 따른 발색의 차이에도 그 원인이 있다. 즉 같은 남염이라도 직물에 따라 발색이 다르게 되는 바, 비단에 들이면 붉은 빛이 도는 아청색을 얻을 수 있지만, 목면이나 삼베에 들이면 칙칙하여 흑색에 가깝게 보인다.<sup>58)</sup>

넷째, 염료의 대응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고 생각해 봄직 하다.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代用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청색 염료가 부족하여 한 때 靑色을 대응하였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청(흑)색 염료가 비할 뿐만 아니라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었다.<sup>59)</sup> 그러나 염료를 구하기 어려워져 조색을 대응했어도 그 색이 심히 보기 흉하다<sup>60)</sup>한 것으로 보아 오래 사용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이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염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한편 청색이 흑색이라고도 불리어졌다는 관점에서 볼 때, 조선조의 흑단령의 역사나 색상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국말에 대례복으로까지 입혀졌던 흑단령은 임난 후 선조대에 군신의 복색이 동색임을 피하고 중국의 제도를 따른다는 취지에서 비로소 조관에게 입혀졌던 복식<sup>61)</sup>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용도가 비록 시대에 따라 변했다고는 해도 흑단령의 착용연대는 시기적으로 훨씬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이미 한 선행연구<sup>62)</sup>에서도 『經國大典』의 朝參, 常參, 朝啓에 입는 黑衣가 흑단령이라고 보면 국초부터 착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이 흑의는 용도상으로 보아 시복에 해당된다. 아직도 시복에 대해

흑단령과 홍단령 是非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참, 상참, 조계에 시복을 입는다는 기록을 볼 때, 적어도 조선조 시복의 근원은 흑단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성종대에 제정되었다고 하는 아청, 초록, 목홍 3색의 관복<sup>63)</sup> 중 아청은 시복으로의 흑단령 또는 왕세자 관복의 색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런지, 이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 IV. 결 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대동양의 색채론에는 개념색과 현상색이 동시에 공존하였기 때문에 색채인식과 표현에 있어서 혼란이 있어 왔다. 또 제한된 염료의 종류에 의해 얻어졌던 색상은 한정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색상 자체의 종류보다는 색의 濃淡에 의한 종류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색명의 분화는 어려웠던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색명들의 특징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명칭을 달리한 同色異名의 색명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異色同名 즉한 색명으로 여러색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음운변화에 의해 표기가 날리된 경우도 있었다. 넷째, 특정시기에만 사용되었던 명칭들도 있다. 다섯째, 상징적인 의미만 남아있고 색상 자체는 변한 경우도 있었다. 여섯째, 자연물의 명칭을 사용하여 구체성을 띠는 명칭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는 명칭이 같으면서도 인식되는 색상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런 명칭 표기상의 복잡한 문제로 야기되는 혼란을 지적하면서 녹색과 남색 계통의 색을 일컫는다고 여겨져 왔던 청색이 아청색, 길국 흑색까지도 의미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청색은 크게 두 범주, 즉 광의의 색채 범주와 협의의 색채 범주로 구분된다. 넓게는 남색, 녹색, 청색, 아청색, 흑색 모두를 포함하는 범주이며 좁게는 청색과 아청색, 흑색의 범주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흑색에도 붉은 색을 띠는 것과 붉은 색을 띠지 않는 것의 두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흑색을 무조건 청색 또는 아청색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청색이 흑색으로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청색이 짙어져서 흑색에 가까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 열거할 수 있는 부수적인 원인에는 첫째, 중국의 청색과

우리나라의 청색이 차이가 있었다는 점, 둘째, 염료로 볼 때는 남염이기에 청색이지만 색상으로 볼 때는 흑색이었다는 점, 목면에나 심베에는 거의 검게 보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염료가 구하기 어려워 조색 염료로도 충당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었다.

한편 흑색 명칭으로서의 분화, 정착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양상은 초기에는 중국 명칭 그대로 청색 또는 아청색이라고도 표현되었으나 점차 청색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아청색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흑색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색명 표기에 있어 나타나는 異色同名 혹은 同色異名의 특성은 조선조 복색의 이해를 어렵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청색이 아청으로, 아청이 흑으로 된 경위와 원인이 파악됨에 따라 조선조 복색의 정리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KBS한국색채연구소의 일련의 색채표준화 작업과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전통표준색채작업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 2) 오이젠타로(권민 역), 『조형심리』, 동국출판사, 201(1991). 가장 미숙한 단계의 언어에서는 색을 표현할 경우 흑백, 즉 명암을 구별하는 어휘 밖에는 없다고 한다.
- 3) 李南植, '색채와 방위신의 민속지', 『韓國民俗과 文化研究』, 安東大學校 民俗學研究所 編, 螢雪出版社, 443(1990).
- 4) 前田雨城, 『色: 染と 色彩』, 東京: 法政大學 出版局, 39-40(1985)
- 5) 李良燮, '朝鮮時代 宮中衣服 染色研究', 『研究報告』 第11輯, 建國大學校附設 生活文化研究所, 91(1988)
- 6) 『譯語類解』 織造,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49(1974)
- 7) 『譯語類解 補』 織造 補,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332(1974)
- 8) 李義鳳, 『古今釋林』,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441-443(1977)
- 9) 金用淑, '文獻을 통해 본 傳統色彩名', 국립현대미술관 편,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제1차 시안』, 87(1991)
- 10) 『譯語類解 補』, 332(1974)
- 11) 李南植, 앞글, 443(1990)

- 12) 『說文解字注』,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218(1985), 注: 考工記日東方謂之青
- 13) 『釋名』釋綵帛, ‘青生也 象物生時色也’
- 14) 鄭時和, ‘韓國人의 色彩意識에 관한 研究’, 국립현대미술관 권, 『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제1차 시안』, 77(1991)
- 15) 陳維稷, 『中國紡織科學技術史(古代部分)』, 北京: 科學出版社, 250(1984)
- 16) 金永淑, ‘韓國服飾史에 나타난 傳統色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2-206(1988)
- 17) 金用淑, 앞글, 87(1991)
- 18) 李良燮, ‘韓國傳統藍染의 比較研究’, 『研究報告』, 第6輯, 建國大學校附設 生活文化研究所, 58(1983)
- 19) 丁學游, 『農家月令歌』(1816)
- 20) 『樂學軌範』處容官服,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410(1975) ‘…衣從五方之色…東方青衣(注: 用藍色)…北方黑衣…’
- 21) 憑虛閣 李氏(鄭良婉 譯註), 『割閣叢書』 권지이 봉임축, 남, 寶普齋, 148-149(1992)
- 22) 『說文解字注』, 656(1985)
- 23) 『中宗實錄』33年 5月 己卯, ‘…傳曰 世子服色 在祖宗朝未知其爲某色也 近來則常服戎服 皆用鴉青…(中略)…東方屬青 宜尚其青 改以草綠戎服 而草綠則宰相皆服其色…’
- 24) 元美浪, ‘青色을 통해 본 중국 概念色의 문제’, 『空間』, 第102號, 94(1975)
- 25) 李良燮, 앞글, 50(1983)
- 26) 『荀子』卷第一 勸學篇 第一, 臺北: 中華書國, 1(1974)
- 27) 『淮南子』第二 假真訓, 臺北: 中華書國, 7(1974)
- 28) 元美浪, 앞글, 91-97(1975)
- 29) 李良燮, 앞글, 56(1983)
- 30) 『世宗實錄』8年 2月 甲申, ‘…冕服…青衣纁裳…’
- 31) 太宗 3年 10月, 端宗 卽位年, 成宗 원년 등에 하사된 冕服의 색상이다.
- 32) 『國朝五禮儀序例』第一 吉禮 祭服圖說, 서울大學校 奎章閣, 407(1979)
- 33) 『光海君日記』6年 3月 戊寅, ‘…百官俱青色官服…青衣者 深青衣也…’
- 34) 『光海君日記』11年 10月 丁卯, ‘…鴉色深青有紋匹段乃世子服色 而朝臣亦爲混着 極爲未安…’
- 35) 『光海君日記』11年 11月 乙巳, ‘…堂上官鴉青有紋匹團領…自前常着無禁…’
- 36) ① 『譯語類解』, 149(1974) ② 『古今釋林』, 597(1977)
- 37) 李盛雨, 『韓國古食文獻集成 古料理書』IV, 修學社, 1517(1992)에 실린 「是議全書」
- 38) 徐有槩, 『林園十六志 一』展功志 卷二, 保景文化社 影印本, 517(1983)
- 39) 金永淑, 앞글, 204-205(1988)
- 40) 李盛雨, 앞책, 1517(1992)
- 41) 憑虛閣 李氏(鄭良婉 譯註), 앞책, 152-153(1992)
- 42) 徐有槩, 앞책, 517(1983)
- 43) 徐有槩, 『林園十六志 二』贍用志 卷三, 保景文化社 影印本, 475(1983)
- 44) 『古今圖書集成』第77卷, 考工典 第九卷 染工部彙考, 90
- 45) 『淮南策』7(1974), ‘今以涅染緇則黑於涅…’
- 46) 徐有槩, 『林園經濟志 一』展功志 卷二, 保景文化社 影印本, 517(1983). 『天工開物』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과 동일하다.
- 47) 『成宗實錄』19年 3月 乙酉, ‘…王世子服 今用綠色 綠間色也…請用黑色 上曰 鴉青豈必爲正色乎…’
- 48) 『中宗實錄』13年 9月 甲子, ‘…時服鴉青 而非我土產勢不得常着…’
- 49) 『中宗實錄』14年 6月 庚午, ‘…黑色非我國所產 而不可常着 常參朝參拜辭時 必以時服見者 以禮見也…’
- 50) 『光海君日記』3年 10月 乙丑, ‘…我國服色 以黑衣稱時服…’
- 51) 劉頌玉, 朝鮮時代 儀軌圖의 服飾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217(1988)
- 52) 『國朝五禮儀』卷之八 凶禮 禫祭儀, 서울 大學校 奎章閣, 321(1979)
- 53) 『光海君日記』5年 2月, ‘…今於暮年服盡之時 除素服卽吉…(中略)…小祥翌日卽吉者…(中略)…祥日乃是初忌 不可服金珠紅紫 是日只進無揚赤色黑衣 翌日卽吉…’
- 54) 『高宗實錄』21年 8月, ‘…宣廟朝 議朝官服色 議者皆以爲尊遵華制 變紅爲青爲宜 臣之先祖文忠公臣恒福 獻議曰 決不可變紅爲青…(中略)…今之章服 亦不可變紅爲黑…’
- 55) 『宣祖實錄』① 32年 8月, ‘…前日禮曹傳 闕內百官冠服東西班堂上以上及侍從臺諫監察六曹郎官外官堂上守令大小奉命之官 爲先具冠帶 團領用黑色…’ ② 34年 8月 ‘禮曹啓曰以服色事 議于大臣…(中略)…自祖宗朝 紅黑



所着之服 岐而二之 行之既久 經變以後 接待天將之時 常着黑色 非舊制也…(中略)…慕華變青 以新一代之觀瞻…(中略)…時服常服各有用處 而亂後純用黑色…(中略)…而我國一自着青之後 紅衣專廢不用 此則欲遵華制 而尚有所欠闕也…’

- 56) 첫째, 청혹을 중심으로 한 ‘어두워지거나 또는 그림자 속에 처한 상태’의 색채그룹이다. 둘째, 적색의 그룹, 마지막 하나는 백,황을 포함한 ‘색의不在 상태’의 그룹이다. 즉 흑군(암색군), 적색군, 백군(무색)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 57) 『中文大辭典』第9卷, 臺北:中國文化大學, 1563(1985)
- 58) ① 金永淑, 앞글, 205-206(1988) ② 金芝希, ‘染科 植物栽培 및 染織物 製作에 관한 研究’, 曉星女子大學校 附設 産業美術研究所, Ⅳ-1(1993) 참조
- 59) 『世宗實錄』22年 10月 己亥 ‘禮曹判書閔義生啓 禁止

朝上 既着青衣 染價甚重…’ 『中宗實錄』13年 9月 甲子 ‘諫院啓曰 我國服色…(中略)…時服鵝青 而非我土產 勢不得常着…’ 『中宗實錄』14年 6月 辛未 ‘…啓曰 黑色 非我國所產 而不可常着…’ 『宣祖實錄』26年 6月 庚子 ‘…上曰 我國服色 黑色難備…’ 『宣祖實錄』34年 6月 甲戌 ‘…依天朝 倣爲服青爲當 特進官李忠元曰 國家幾亡 而中原發大兵來救 恩莫重焉 冠服制度 一從天朝可矣 上曰 黑難紅易乎…’

- 60) 『世宗實錄』27年 8月 丁未 ‘…近來濟用監 以青染難繼 改用皂色 其色甚陋…’
- 61) 柳喜鄉,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320-321(1980)
- 62) 李京子, ‘우리 衣生活의 傳統樣式’, 『傳統의 生活樣式의 研究(中)』,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55-156(1982)
- 63) 崔南善, 『朝鮮常識』, 東明社, 123(1947)